DBpia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의 변증
The Relationship of Buddhism and Politics of Silla Hadae: The Dialectic of Segment and Integration

저자 (Authors)
박희택
Park Hee-Taek

출처 (Source)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2008.9, 125-138(15 pages)
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7(2), 2008.9, 125-138(1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71524

APA Style
박희택 (2008).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125-1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2 11: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의 변증

박 희 택
위덕대학교

◆ 논 문 요 약 ◆

이 논문은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라 중대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영향사적 맥락에서 먼저 검토하였다.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을 뒷받침한 정치이데올로기는 화엄사상과 법상종 및 정토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정토사상 가운데 미륵상생사상과 미타사상은 신라 중대의 귀족과 일반민중의 의지처로 기능하였다.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이러한 영향사 아래 전개되었다. 진골귀족의 반대운동으로 전제왕권이 해체되고 귀족연합정치가 전개된 정치변동은, 화엄사상이나 법상종같은 복잡한 교리가 아닌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선종과 현세지향적인 미륵하생사상을 선호하게 하였다. 미륵하생사상은 법상종과 연결된 것이므로 법상종 또한 신라 하대의 정치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반드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사상은 밀교(비로자나불사상)이라 할 것이다. 통일신라 9세기 이후 신라 전역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상이 그 반증이 된다. 이것은, 1) 신라 하대의 무상한 정치현실을 넘어서 영원광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빛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을 모셨다는 점, 2) 신라불교사상사의 전개상 신라 하대는 화엄불교에서 밀교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 3) 신라 하대의 사상계가 화엄불교보다는 밀교에 친근성을 보였다는 점 등과 결부된다.

신라 하대의 신라인들은 스스로 빛의 부처님이 되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분절된 정치를 사상적으로 통합한 변증은 선종이나 미륵하생사상, 법상종이 아닌 밀교의 비로자나불사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 주제어 : 신라 하대,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 밀교, 비로자나불사상

Ⅰ. 두 가지 문제제기 : 신라의 불교와 정치

신라불교는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준거로 할 때, 〈불교도입기 → 불교수용기 → 불교발달기 → 불교분절기〉의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1] 제1기 불교도입기는 불교수용 이전단계로서 신라의 공식적 인정〔公認〕 이전시기에 국경을 접한 고구려 등으로부터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는 왕실까지 접하게 된 단계이다. 제19대 눌지왕대(417-458)부터 제

1) 박희택, "불교와 정치통합 : 신라불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 백산서당, 2005), pp. 92-9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23대 법흥왕대(514-540)의 불교수용 이전까지의 110여 년에 해당된다.

제2기 불교수용기는 신라사회에 불교수용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신라의 공식적인 불교수용이 이루어진 법흥왕 14년(527)으로부터 제24대 진흥왕대(540-576)까지의 50여 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불교식 왕명시대'로 명명되는 '중고기(中古期)'의 전기(前期)에 해당되고, 삼국통일의 기반조성기로 규정될 수 있는 시기이다.[2)]

제3기 불교발달기는 불교수용 이후단계로서 제25대 진지왕대(576-579)로부터 신라 중대(제29대 무열왕대 - 제36대 혜공왕대)까지의 200여 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삼국통일과정 및 성취와 함께 한 시기이며, 이에 조응(照應)하는 불교사상이 난만히 꽃핀 시기이다. 통일과정에서는 원광 · 안홍 · 자장 · 명랑이, 통일성취를 전후하여서는 원효 · 의상이 대표적인 불교정치사상가인데, 통일과정의 4인이 신라중심의 국가불교적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면, 통일성취를 전후한 2인은 신라를 넘어서 불교사상의 통합적 측면을 창조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을 열었다.

제4기 불교분절기는 제37대 선덕왕대(780-785)부터 전개된 신라 하대에 해당된다. 통일신라의 불교는 제35대 경덕왕대(742-765)에 절정을 이루고, 이후 일종의 하강곡선을 타기 시작하였다. 하대의 통일신라가 지방호족의 세력화와 맞물려 전개되었다면, 하대의 불교는 이들 지방호족과 연계된 선종이 9산으로 분절하여 발달하는 형국을 보였다. 9산 선종의 개창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는데, 150여 년의 이 단계를 신라불교의 분절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라불교의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3기 불교발달기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에 성립된 신라 중대 전제왕권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한 경향이 컸는데,[3)] 과연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준거로 하여 불교발달기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교정치이념의 강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여도, 전제왕권체제에서도 제35대 경덕왕대까지 통일신라의 불교가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사실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라 중대 전제왕권과 불교의 관계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의 제Ⅱ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글의 중심이 되는 제Ⅲ장의 전제적 고찰로서 '영향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둘째, 제4기 불교분절기와 관련하여 신라 하대의 지방호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선종만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 이론(異論)없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누구도 문

---

2) 박희택, "신라의 불교수용과 정치발전 연구 : 법흥 · 진흥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p. 2.

3) 김상현, "신라 중대 전제왕권과 화엄종," 『동방학지』, 44(1984), pp. 83-85 ; 김영하,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 『신라 중대사회 연구』 (서울 : 일지사, 2007), pp. 196-236 ; 이기백, "신라 골품체제 하의 유교적 정치이념,"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 서울 : 일조각, 1997), p. 231 ; 최병헌, "신라 불교사상의 전개," 『역사도시 경주』 (서울 : 열화당, 1984), pp. 380-38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 그러나 통일신라 9세기 이후에 "신라땅을 뒤덮은 비로자나부처"[4]의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신라 하대의 밀교적 관점 - 비로자나불사상에 관한 검토가 필히 있어야 됨을 말해 준다. 이 글의 제Ⅲ장에서 논급하기로 한다.

Ⅱ. 영향사적 맥락 : 신라 중대의 불교와 정치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에 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사(影響史, Wirkungsgeschichte, effective history)'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 중대의 불교와 정치를 논할 필요가 있다.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해석학적 언급을 통해 전통에 속해 있는 일들에 대해 전통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영향사라고 불렀으며, 해석자는 영향사의 지배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5] 한편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일종의 사상사 연구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불교정치사상사 연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 불교정치사상사를 논구하는데는 그 영향사인 신라 중대 불교정치사상사의 맥락에 관한 전제적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라 중대의 정치적 성격을 '전제정치'로 규정한 이는 이기백이며, 주된 학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신라 상대를 화백회의(和白會議)와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을 통한 '귀족연합정치'로 본 반면, 신라 중대를 집사부(執事部)의 설치와 그 장관으로 수상격인 중시(中侍)[6]를 통해 국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전제왕권으로 본 것이다. 이기백에 의하면 신라 하대는 다시 귀족연합정치로 전환한 것이 된다.[7] 현재 이 관점에 대한 여러 측면의 반론도 적지 아니 하며,[8] 신라 중대 전제정치 속에서도 왕권의 전제화에 반대하면서 활동한 진골귀족의 동향에 관한 보완적 연구도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9] 신라 중대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는 주된 학설을 인정하면서도 반론과

---

4) 진정환,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경주 : 국립경주박물관, 2007), pp. 22-43.

5)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r. by G. Barden and J. Cumming(2nd ed.; N. Y.: Crossroad, 1982), pp. 267ff.

6) 경덕왕 6년(747)에 시중(侍中)으로 명칭이 바뀐다.

7) 이기백, 『한국사 신론』 (신수증판 ; 서울 : 일조각, 1997), pp. 82, 107-108, 132 ; 이기백,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서울 : 일조각, 1974), 제Ⅱ-Ⅲ장.

8)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기 세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 신형식, 『통일신라사 연구』 (서울 : 삼지원, 1990) ; 이정숙, "신라 진평왕대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 연구』, 52(1986) ;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이기백의 재반론도 이루어졌다. 이기백, "신라 전제정치의 성립,"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 이기백, "통일신라시대의 전제정치," 『한국사 상의 정치형태』 (서울 : 일조각, 1993) 등이 그것이다.

9) 김수태,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서울 : 일조각, 199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보완적 연구를 종합적 검토하는 것이 사실획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신라 중대를 전제정치로 규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불교교학으로 화엄사상을 든 것 또한 현금까지 주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엄사상이 전제왕권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처음 피력한 이는 김문경이며, 이를 그대로 수용한 이가 이기백이다.

> 이(화엄종)의 사상은 곧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원융사상(圓融思想)이니만치, 사회적 기반으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중략) 신라의 화엄종도 당(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귀족중심의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왕권의 강화에 따라 왕권위의 상징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왕권 · 귀족세력의 지원에 의하여 홍포(弘布)되어 갔다. 화엄의 유심철학(唯心哲學)은 '일심(一心) · 유심(唯心)'에 의하여 만물을 통섭(統攝)하는 것이고 보면, 이 화엄철학의 근본인 '심(心)'은 제왕(帝王)에 비유되어지고, 또 사해지배체제(四海支配體制)에 부합되어지는 것이다.[10]

> 화엄사상은 일(一)이 곧 다(多)요 다가 곧 일이라는 원융사상이며, 일심에 의하여 만물을 통섭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일치하는 것이며, 귀족사회에서 크게 환영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11]

이기백의 견해가 피력된 1976년에 역시 안계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최병헌도 의상의 화엄사상을 말하면서 동의하고 있다.

> 『화엄경』은 우주의 질서를 미적으로 표현한 경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통일국가의 상징이기도 했다. 화엄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정계나 사회를 정화하고, 또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인심을 통일하는데 알맞았다. 여기에 무열왕 시대부터 시작되는 전제왕권에 따라 전개된 율령정치체제에 그 정신적인 뒷받침을 하는 구실을 화엄종이 크게 담당하게 되었던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12]

> 의상의 화엄사상은 만유일체가 그대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일체불리(一切不離)하다는 것으로

---

10) 김문경, "의식(儀式)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운동," 『사학지』, 4(1970), pp. 102, 106.

11) 이기백, "신라시대의 불교와 국가," 『역사학보』, 111(1986) ; 이기백, 『신라사상사 연구』 (증판 ; 서울 : 일조각, 1997), p. 256 ; 이기백, 『한국사 신론』, 앞의 책, p. 116.

12) 안계현, "신라불교," 『한국사3』(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76), p. 21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서 '일즉다 다즉일'의 중중무진한 원융사상이며, 일심에 의하여 만물을 통섭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우주 사이에 있어야 할 개성있는 자유와 조화 속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화엄종은 통일 초기 신라가 고구려 · 백제의 귀족과 신라 귀족의 반목, 그 유민의 포섭문제 등 정치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에 그러한 대립성이나 다원성을 통일하는 이념으로서, 그리고 또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야기되는 귀족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깨닫게 하는 정신적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다.[13]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김상현은 반론을 편 바 있다. 그의 반론은 매우 적극적이며, 이에 대한 이기백의 재반론도 열성적이다.

불교사상, 그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극치로서의 화엄사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불변의 초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세속적 이념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불교적 본질로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화엄사상이 세속이념, 특히 종교적 진실보다는 힘의 논리가 유효하게 통용되는 특정 정치이념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화엄사상과 전제왕권과의 관련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유효하려면, 특정 불교집단 내지는 불교인이 전제왕권과 현실적으로 어떠한 교섭을 가졌으며, 그것이 어떤 현상적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종교적 형식논리와 명분을 이용한 경우는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14]

아무리 종교적 사상이라 하더라도 요컨대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다. 화엄사상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시대적 · 사회적 관련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상, 인간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역사적 고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역사학에서는 당연히 전제왕권이 화엄사상에 접근한 사실을 추구해야 하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화엄사상의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15]

이상의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신라 중대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이데올로기에 관해 논쟁점을 부각

---

13) 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한국사 특강』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324.
14) 김상현, 앞의 논문, pp. 60, 64-65.
15) 이기백, "신라시대의 불교와 국가," 『신라사상사 연구』 (증판 ; 서울 : 일조각, 1997), pp. 257-25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시키면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 중대가 전제정치이며, 화엄사상이 이를 뒷받침하였다는 주된 학설을 확인하는 동시에, 반론과 재반론에 관해서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신라 중대의 정치적 성격이 전제정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나, 전제정치가 국왕 1인의 독재가 아니라거나(신형식), 그 성립시점이 진평왕대라는(이정숙) 지적 등과 같이 전제정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토를 다는 방식에 그치나,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유교는 차치하고라도 화엄사상 이외에 다른 불교사상을 거론하기도 한다. 법상종(法相宗)과 정토사상(淨土思想)이 대표적인 것들이다.[16]

'법상'이란 '진리의 형상(形相)'이란 뜻으로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사상(事相)을 말한다. 법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을 오직 중시하여 '유식(唯識)'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법상종은 유식종(唯識宗)의 성격을 띤다. 마음의 작용인 식이 연기(緣起)하여 나타나는 현상(형상, 사상)들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해심밀경』(현장 한역), 『유가사지론』(미륵 찬술), 『성유식론』(호법 찬술) 등을 소의경론으로 한다. 미륵은 인도 유식학파의 개조이며, 무착(無着)과 세친(世親) 형제로 전승되었다.[17] 구법을 위해 인도에 간 당(唐) 현장은 세친 이후의 뛰어난 이론가 호법의 제자인 계현(戒賢)에게서 유식학을 공부하여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규기(窺基)와 신라유학승 원측(圓測)은 현장에게서 유식학을 수학하였으며, 규기에 의해 중국 법상종이 개종되었다.

원측은 끝내 신라로 귀국하지는 못 하였지만,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신라유학승 - 이를테면 원측의 제자인 도증(道證)[18] 등에 의해 신라 법상종의 맹아가 싹트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시점은 제32대 효소왕대(692-702)이며, 제31대 신문왕대(681-692)에는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도증의 제자인 태현(太賢)은 원효(元曉) 및 경흥(憬興)[19]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일연은 태현을 신라 법상종의 종조로 거론한다.[20] 그의 유식학 관련 저술은 20여 종이나 된다.

흔히 법상종을 미륵사상과 결부지어 말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그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

16) 곽승훈,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변동,"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pp. 1-2. 신라 중대 이전에 신라불교가 성립시킨 5개 교종(敎宗)은 보덕의 열반종(전주 경복사), 자장의 계율종(양산 통도사), 원효의 법성종(경주 분황사), 의상의 화엄종(영주 부석사), 진표의 법상종(김제 금산사) 등이다[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서울 : 경세원, 1997), p. 142]. 신라 하대에는 9산 선문(禪門)이 성립되었으며, 이 글은 신라 하대의 밀교사상(비로자나불사상)의 발달을 상정하여 작성된다.

17) 형 무착은 『섭대승론』을, 동생 세친은 『유식삼십송』을 찬술하였다.

18) 도증은 효소왕 2년(693)에 당으로부터 귀국하였다(『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효소왕 2년조).

19) 경흥은 진표와 마찬가지로 백제 유민인데, 문무왕의 당부로 신문왕대 국노(國老, 國師)가 되었다(『삼국유사』 5, 〈감통〉 7, 경흥우성조). 경흥의 유식학 관련저술은 17종이나 된다[정병삼, "불교철학의 확립," 『한국사 9』(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1998), p. 368].

20) 『삼국유사』 4, 〈의해〉5, 현유가 · 해화엄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다. 1) 교학적 배경과 관련하여서 무착이 미륵에 귀의하여 들은 미륵교설 자체가 유식사상의 내용이 된 데서 기인한다. 미륵에 대한 감동이 미륵사상으로 승화되었고, 자연히 미륵사상과 법상종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21]

2)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서 신라 법상종의 경우 백제 유민인 진표(眞表)가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미륵신앙과 법상종을 결부지음으로써 미륵신앙적 성격도 띠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22] 진표는 원광(圓光)이 선행한 점찰법(占察法)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원광 - 진표계열로, 태현은 원측의 제자인 도증을 스승으로 하였기에 원측 - 태현계열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자는 주로 지방의 일반민중을 대상으로 미륵사상과 지장사상을 체계화하는 형태를 띠었다면, 후자는 경주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미륵사상과 미타사상을 체계화하는 형태를 띠었다.[23] 후자의 법상종은 6두품의 사상적 귀의처가 되었으며, 전제왕권은 전제왕권을 반대하는 진골귀족을 견제하기 위하여 6두품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법상종에도 관심을 경주하였다.[24]

3) 사상적 발달과 관련하여서 정토사상과 결부지어 신라 법상종의 미륵신앙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화엄사상과 법상종이 학문불교 내지 체제불교라면, 정토사상은 민중불교의 성격을 지닌다. 신라통일기에 일반민중들에게 살아있는 불교사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정토사상이다.[25] 정토사상에는 미륵사상(彌勒思想)과 미타사상(彌陀思想)이 있고, 신라를 비롯한 삼국의 귀족 사이에는 미륵사상 널리 받아들여졌다. 미륵사상에는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상생사상(上生思想)과, 전륜성왕의 치세 때에 하생할 미륵불의 설법으로 구제되기를 염원하는 하생사상

---

21) 오형근, "신라 유가사상의 전개와 미륵신앙," 『한국 미륵사상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pp. 62-67, 87-88.

22) 이 점은 발표자의 가설적 소견이다(cf. 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앞의 논문, p. 334. 최병헌은 두 사상을 "무관하게"라고 발표자와는 반대로 보고 있다). 신라 법상종에 관해서는, 김남윤, "신라 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 『한국사론』, 11(1984) ; 김남윤, "신라 법상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 김두진, "고려초의 법상종과 그 사상," 『한우근 기념 사학논총』(서울 : 지식산업사, 1981) ; 김복순, "신라 유가계 불교 : 8-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 6(1992) ; 김상현, "신라 법상종의 성립과 순경(順璟)," 『가산학보』, 2(1993) ; 문명대,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상/하)," 『역사학보』, 62/63(1974) ; 이기백,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 서울 : 일조각, 1997) ; 장지훈, 『한국 고대 미륵신앙 연구』(서울 : 집문당, 1997) 등이 있다.

23) 문명대,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상/하)," 『역사학보』, 62/63(1974), pp. 156-160 ; 정병삼, "불교철학의 확립," 앞의 논문, p. 371.

24) 김수태, 앞의 책, p. 50.

25) 최병헌은 탈현세적인 정토사상과는 별도로 현세구제적인 관음사상(觀音思想)도 널리 유포되었다고 보고 있다(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앞의 논문, p. 332). 진표를 중심으로 한 지장사상(地藏思想)도 거론하고 있다(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앞의 논문, p. 334). 정병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정병삼, "불교철학의 확립," 앞의 논문, pp. 404-407, 410-4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下生思想)이 있다. 통일 이전의 신라는 미륵하생사상이 주조를 이루었음에 비해, 통일 이후 신라 중대에는 유식사상 곧 법상종의 발달과 함께 미륵신앙의 내용도 바뀌어 보다 종교적으로 승화된 미륵상생사상이 중심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라 중대의 법상종이 미륵상생사상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26] 신라 정토사상의 특이한 점은 통일 이전의 정토사상(미륵하생사상)도 귀족 중심적이었고, 통일 이후의 정토사상(미륵상생사상)도 귀족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정토사상 중 미타사상이 일반민중들에게 호응받게 된다.[27] 신라 중대에 정치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정토사상이 상정된다고 할 때, 귀족들에게는 미륵상생사상이 작용하였으며, 일반민중들에게는 미타사상이 호응받았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28]

Ⅲ.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의 변증

제Ⅱ장을 통하여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이 화엄사상 · 법상종 · 정토사상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상황과 불교사상이 상호반영 · 상호침투되는 연기변증법적 관계가 신라 중대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전제왕권은 화엄사상과 법상종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였으며, 역으로 화엄사상과 법상종 또한 전제왕권과 부합(符合)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신라 중대의 귀족와 일반민중은 각각 미륵상생사상과 미타사상을 희원(希願)하였으며, 역으로 미륵상생사상과 미타사상 또한 귀족과 일반민중에게 상합(相合)되는 바가 컸다. 이러한 관계는 정치적 상황이 변한 신라 하대에는 어떠한 영향사로 작용할 것인가?

진골귀족의 반대운동으로 전제왕권이 해체되면서 지방호족이 중심이 되는 귀족연합정치가 신라 상대와 같이 펼쳐지는 것에 따른 불교계의 사상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물론 불교사상이 당대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 내지 뒷받침하는 양 방향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곽승훈은 신라 하대의 전개라는 정치변동과 연동한 불교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29] 1) 화엄사상이나 법상종의 복잡한 교리를 떠나 참선을 통해 개인의 심성도야를 하는 선종이 등장하였으며,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선종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 저항하여 일어나는 지방호족들에게 독립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

26) 신라 중대의 정토사상에 관해서는, 김영미, 『신라 불교사상사 연구』 (서울 : 민족사 1994) ; 이기백,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 서울 : 일조각, 1997), 제Ⅱ장 등이 있다.

27) 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앞의 논문, pp. 331-332.

28) 미타사상이 신라 중대의 왕권강화에 이바지하였다는 학설도 존재한다(김영미, 『신라 불교사상사 연구』, 앞의 책, pp. 143-153).

29) 곽승훈, 앞의 논문, pp. 4-5. 발표자의 이해를 다소 덧붙여 정리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2) 진표의 제자들에 의해 옛 백제 및 고구려지역에 미타사상보다는 미륵하생사상이 널리 퍼졌으며, 이것은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귀족들이나 일반민중들 모두가 보다 현세지향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중대의 주통(州統)과 군통(群統) 등을 통한 교단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38대 원성왕대(785-798)에 승관제(僧官制)인 정법전(政法典, 政官, 正法司)을 정비하고 재행(才行)있는 승려들을 등용하였다. 승관을 속인에서 승려로 전환함으로써 불교교단을 안심시키는 한편, 실제적으로는 감독을 강화하는 이중효과를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신라 하대의 불교정치사상사는 선종과 미륵하생사상 중심으로 정리되고, 불교와 정치의 현실적인 관계는 정법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인가?[30] 영향사적 맥락에서 보기로 하자. 1) 승관제의 정비는 국가의 불교교단에 대한 감독강화의 성격을 띤 것이라서 국가와 불교교단의 갈등이 내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갈등이 반신라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나, 불교교단은 불교와 승려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승전(僧傳) 찬술을 통해 대응해 나갔다. 승전 찬술이 주로 화엄종과 밀교 승려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새길 만한 사실이다.[31]

2) 신라 하대에는 선종과 미륵하생사상 이외의 주요한 불교사상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우선 진표의 제자들에 의한 미륵하생사상의 전파는 법상종과 연계된 것이므로 법상종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라 하대의 불교정치사상으로 선종과 미륵하생사상과 법상종을 일단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라 하대의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기록될 비로자나불상 조성사실을 바라본다면, 밀교사상도 신라 하대의 주요한 불교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선종과 미륵하생사상과 법상종 이외에 밀교사상(비로자나불사상)을 신라 하대의 주요한 불교사상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반증은 9세기 이후 통일신라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성된 비로자나불상이 된다. 물론 8세기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온 신라땅을 비로자나불상이 뒤덮었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9세기 들어서면서 비로자나부처는 온 신라땅을 뒤덮었다. 이 시기의 비로자나부처는 8세기에 만든

---

30) 신라의 승관제에 관해서는, 이수훈, "신라 승관제의 성립과 기능," 『부대사학』, 14(1990) ; 채상식, "신라 승관제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문화연구』, 6(1993) 등을 참조할 것. 통일 이후의 승관제와 왕실사원의 관사적(官寺的) 기능, 성전사원(成典寺院) 등에 관해서는, 변선웅, "황룡사 9층탑지의 연구 : 성전과 정법전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0-10(1973) ; 李成市,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東京 : 岩波書店, 1998), pp. 241-269 ; 이영호, "신라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1983) ; 정병삼, "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승관제도," 『국사관논총』, 62(1995) ; 채상식, "신라 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1984) 등을 참조할 것.

31) 곽승훈, 앞의 논문, 제2장 제1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비로자나부처에 비해 완성도는 덜 하지만, 우선 많은 수효의 비로자나부처를 만들었으며, 재료도 돌 · 철 · 금동 · 나무 등으로 다양해졌다. 비로자나부처를 만든 곳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땅을 벗어나 신라 전역으로 확산됐다. 또 비로자나부처는 화엄종 사찰뿐만 아니라 9세기에 지방을 중심으로 선풍을 떨치던 선종 사찰에서도 주존으로 모셨다. 이렇게 선종 사찰에서도 비로자나부처를 모신 이유는 지구가 돈다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불변의 진리이듯 불교의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부처 또한 화엄종이든 선종이든 종파를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32]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반에 만든 비로자나불상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했기 때문인지 퇴화된 느낌을 준다. 특히 비로자나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권인(智拳印)의 모습이 흐트러져 손가락을 곧추세워 잡지 않고 두 손을 모은 것처럼 표현하는 등 해이해진 경향을 보인다.[33] 다음은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상의 목록이다(시대순, 고려 및 조선시대 외).

(01) 내원사 비로자나불상(766, 경남 산청군)
(02) 불국사 비로자불상(8세기 후반, 경북 경주시)
(03) 청암사 수도암 비로자불상(8세기 후반, 경북 김천시)
(04) 보림사 비로자불상(858, 전남 장흥군)
(05) 도피안사 비로자불상(865, 강원도 철원군)
(06)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불상(863, 대구시 동구)
(07) 축서사 비로자불상(867, 경북 봉화군)
(08)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불상(883, 경남 합천군)
(09) 불곡사 비로자불상(9세기 중엽, 경남 창원시)
(10) 비로사 비로자불상(9세기 중엽, 경북 영주시)
(11) 부석사 자인당 비로자불상(9세기 중엽, 경북 영주시)
(12) 용암리 절터 비로자불상(9세기 중엽, 전북 임실군)
(13) 한산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경남 진주시)
(14) 동악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경북 예천군)
(15) 성혈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경북 영주시)
(16) 각연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충북 괴산군)
(17) 성주 금봉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경북 영주시)

32) 진정환, 앞의 책, p. 43.
33) 위의 책, p. 3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18) 홍천 물걸리 비로자불상(9세기 후반, 강원도 홍천군)
(19) 장곡사 비로자불상(9세기 말, 충남 청양군)
(20) 심복사 비로자불상(9세기 말-10세기 초, 경기도 평택시)
(21) 용암사 비로자불상(9세기 말-10세기 초, 충북 청주시)
(22) 증심사 비로자불상(9세기 말-10세기 초, 광주시 동구)
(23) 구례 대전리 비로자불상(9세기 말-10세기 초, 전남 구례군)[34]

이들 목록은, ① 사례가 많다는 점 ② 대부분 9세기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점 ③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 ④ 신라 하대 말까지 조성이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추출할 수 있겠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⑤ 화엄종 사찰이든 선종 사찰이든 회통적으로 모셔졌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적 사항이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에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뚜렷한 특징을 띠면서 비로자나불을 조성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라 하대의 불교는 분절된 정치와 상응(相應)하는 선종적 전개를 보이는 한편, 무상한 정치현실을 넘어서 영원광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빛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봉불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원효와 의상이 당도한 화엄불교 내지 신라 하대에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던 중국 화엄종 제3조 현수 법장화엄(신역불교)의 신라 하대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원광(圓光)과 안홍(安弘), 자장(慈藏)과 명랑(明朗)에 연원을 둔 밀교의 발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35] 비로자나불을 화엄불교의 주불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밀교의 주불로 인식하는 것이 고려 건국의 밀교적 이념까지를 염두에 둘 때 적실성(適實性)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선종은 화엄불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선종의 홍성과 화엄 비로자나불의 병립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밀회통(華密會通)은 가능하였을지언정 화선회통(華禪會通)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원사 비로자나불상 조상기는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겠다는 것(自毘盧遮那是ㅁ覺)"을,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조상기는 "진리의 근원(비로자나불)에 계합(契合)되기를 서원하는 것

34) 위의 책, pp. 62-63.

35) 신라밀교의 초전에 관해서는, 『해동고승전』 2, 석안함조 ; 고익진, "불교편," 『한국학 기초자료 선집 : 고대편』(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p. 579-581 ; 박태화, "신라시대의 밀교전래고," 『한국밀교학 논문집』(서울 : 진각종 해인행, 1986), p. 17 ; 서윤길, "밀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1991), p. 818 ; 이원경, "신라불교의 밀교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등을 참조할 것. 신라밀교와 정치의 관계를 논구한 것으로는, 박희택, "불교와 정치통합 : 신라불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사』(서울 : 백산서당, 2005)을 볼 것.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契眞源)"을 발원하고 있다.[36] 현실은 언제나 한계성과 비근원성을 보여 주며, 하대의 신라인들에게는 극도로 혼란하고 무상한 정치현실이 더욱 크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빛의 부처님이 되어 한계를 넘고 진리의 근원에 닿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하대 신라인들로 하여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로자나불상 조성을 촉진하였다고 하겠다. 불교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신라 하대의 분절된 정치를 사상적으로 통합한 변증은 선종도 아니고, 미륵하생사상이나 법상종도 아닌, 밀교의 비로자나불사상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선무외(善無畏)의 강설을 기초로 제자 일행(一行)이 찬술한 『대일경소』에 따르면, 비로자나불은 〈제암변명(除闇遍明) · 능성중무(能成衆務) · 광무생멸(光無生滅)〉의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제암변명 : 비로자나불의 지혜
· 능성중무 : 비로자나불의 자비
· 광무생멸 : 비로자나불의 본덕[37]

그런데 선무외에게서 순수밀교를 배운 의림(義林)과 불가사의(不可思議) 등이 이미 제33대 성덕왕대(702-737)에 귀국하여 태장계 밀교를 전하였고, 금강지(金剛智) - 불공(不空)으로 이어지는 금강계 밀교를 제37대 선덕왕대(780-785)에 신라에 전한 이는 혜일(慧日)로 추정된다.[38] 하대의 신라인들이 비로자나불사상을 필시 체득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태장계와 금강계 양계 만다라사상(曼荼羅思想, the mandala thought) 또한 신라 하대에 대중화되었다고 보면, '상호공양(相互供養)'의 윤원구족(輪圓具足)한 대조화세계(大造化世界)를 각박한 정치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밀교사상 - 비로자나불사상 - 만다라사상에서 신라인들은 찾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비로자나불사상의 강점은 선밀회통(禪密會通)[39]과 화밀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대의 신라인들에게 희망으로 수용,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불의 '광명(빛)'을 받으면서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의 한가운데를 통합적 자아로 걸어갔고, 그 사회를 통합사회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

3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 고대 금석문3』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pp. 314-318.
37) 『대일경소』 ; 『대정장』 39, 579상ff.
38) 고익진, 『한국 고대 불교사상사』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p. 465.
39) 장흥 보림사는 선종 9산 중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데(도의 - 염거 - 체징),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상 목록 03번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로자나불이 중심불로 모셔져 있다. 이것은 선종과 밀교의 회통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참고문헌〉

『대일경소』『삼국사기』『삼국유사』『섭대승론』『유식삼십송』『해동고승전』
고익진. 1987. "불교편."『한국학 기초자료 선집 : 고대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익진. 1989.『한국 고대 불교사상사』.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곽승훈. 1999.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변동."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흥. 1990. "삼국 및 통일신라기 세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윤. 1984. "신라 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한국사론』. 11.
김남윤. 1995. "신라 법상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두진. 1981. "고려초의 법상종과 그 사상."『한우근 기념 사학논총』. 서울 : 지식산업사.
김복순. 1992. "신라 유가계 불교 : 8-9세기를 중심으로."『한국 고대사 연구』. 6.
김상현. 1993. "신라 법상종의 성립과 순경(順璟)."『가산학보』. 2.
김문경. 1970. "의식(儀式)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운동."『사학지』. 4.
김상현. "신라 중대 전제왕권과 화엄종."『동방학지』. 44.
김수태. 1996.『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서울 : 일조각.
김영미. 1994.『신라 불교사상사 연구』. 서울 : 민족사.
김영하. 2007.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신라 중대사회 연구』. 서울 : 일지사.
문명대. 1974.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상/하)."『역사학보』. 62/63.
박태화. 1986. "신라시대의 밀교전래고."『한국밀교학 논문집』. 서울 : 진각종 해인행.
박희택. 2005. "불교와 정치통합 : 신라불교의 정치사상."『한국정치사상사』. 서울 : 백산서당.
박희택. 2003. "신라의 불교수용과 정치발전 연구 : 법흥 · 진흥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선웅. 1973. "황룡사 9층탑지의 연구 : 성전과 정법전 문제를 중심으로."『국회도서관보』. 10-10.
서윤길. 1991. "밀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신형식. 1990.『통일신라사 연구』. 서울 : 삼지원.
안계현. 1976. "신라불교."『한국사3』.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오형근. 1986. "신라 유가사상의 전개와 미륵신앙."『한국 미륵사상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이기백. 1997. "신라 골품체제 하의 유교적 정치이념."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서울 : 일조각.
이기백. 1997.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 서울 : 일조각.
이기백. 1986. "신라시대의 불교와 국가." 『역사학보』. 111.
이기백. 1993. "신라 전제정치의 성립."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 서울 : 지식산업사.
이기백. 1974.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서울 : 일조각.
이기백. 1997.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 서울 : 일조각.
이기백. 1993. "통일신라시대의 전제정치." 『한국사 상의 정치형태』. 서울 : 일조각.
이기백. 1997. 『한국사 신론』. 신수중판 ; 서울 : 일조각.
이수훈. 1990. "신라 승관제의 성립과 기능." 『부대사학』. 14.
이영호. 1983. "신라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
이원경. 2004. "신라불교의 밀교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 1986. "신라 진평왕대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 연구』. 52.
장지훈. 1997. 『한국 고대 미륵신앙 연구』. 서울 : 집문당.
정병삼. 1998. "불교철학의 확립." 『한국사9』.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정병삼. 1991.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병삼. 1995. "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승관제도." 『국사관논총』. 62.
진정환. 2007.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경주 : 국립경주박물관.
채상식. 1993. "신라 승관제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문화연구』. 6.
채상식. 1984. "신라 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최병헌. 1990. "불교사상과 신앙." 『한국사 특강』.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병헌. 1984. "신라 불교사상의 전개." 『역사도시 경주』. 서울 : 열화당.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 고대 금석문3』.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李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東京 : 岩波書店.
Gadamer, Hans-Georg. 1982. *Truth and Method.* tr. by G. Barden and J. Cumming. 2nd ed.; N. Y.: Crossroad.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13일 /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12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

subjective inclination that depends on the virtues of the ruler, whereas Mencius' perspective is, not only subjectivity, but also the objective tendency, since the ruler's duty is to regulate the country as the "min-ui-boo-mo" (parents of people). Therefore, according to Mencius, a ruler's governing ability and strategy to design the system and policies for "bo-min" (protection and care of the people),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and Min-bon-joo-ui plays a very essential role in the whole process of ruling.

Key words: Min-ui-boo-mo (Parents of People), Min-bon-joo-ui (Political Ideology for Caring People), Wang-jung (Royal Rule), In-jung (Politics by Human Nature), Wang-do (Righteous Government), Sun-wang (the Greatest Late King)

The Relationship of Buddhism and Politics of Silla Hadae: The Dialectic of Segment and Integration

Park, Hee-Taek

This paper treats of the relationship of Buddhism and politics of Silla Hadae(下代). In order to study this subject, I examine in advance that of Buddhism and politics of Silla Jungdae(中代). Political ideology that supporting despotic regime of Silla Jungdae is Hwaeomsasang(華嚴思想) and Beobsangjong(法相宗) and Jeongtosasang(淨土思想) and so on.

Political change of Silla Hadae, that is, dissolution of despotic regime and development of aristocracy brought on the preference for Seonjong(禪宗) and Mireukhasaengsasang(彌勒下生思想).

For all that, we should take notice of Esoteric Buddhism(Vairocana Buddha thought). Because, Vairocana Buddha of Esoteric Buddhism is Buddha of light who console people exhausted due to politics with rays, Main stream of Silla Hadae is not Hwaeomsasang but Esoteric Buddhism, Seonjong runs through Esoteric Buddhism.

People of Silla Haedae had intention to get over the limit through being Buddha of light themselves. The dialectic of segment and integration of Silla Haedae could be realized by Vairocana Buddha thought of Esoteric Buddhism.

Key words: Silla Hadae(下代), Buddhism and Politics, Segment and Integration, Esoteric Buddhism, Vairocana Buddha Thought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2 11:08(KST)